

국토부 한옥 교육 사업 모두 선정

전북대, 2025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 등
설계·시공 모두 선정으로 한옥 교육 메카 입증… 한옥 세계화 앞장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단장 남해경)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에 모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축사와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옥 전문 교육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북대가 두 과정을 모두 석관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한옥 교육기관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옥설계 과정은 사업 첫 해부터 연속 선정된 유일한 기관으로, 3년 전부터 시공과정까지 모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그동안 500여 명의 한옥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하면서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은 6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에 모두 선정됐다. 사진은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 한옥교육 실습.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개월 과정으로 건축사와 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론교육은 전주캠퍼스에

된다. 교육생들은 12월 수료식과 함께 그간의 실력을 선보이는 졸업작품전도 갖는다.

한옥설계 과정은 4개월 교육으로, 같은 시기 모집과 교육 일정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한옥 이론과 설계 실습,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은 교육의 실습 결과물인 전자 건축물을 공공기관과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고, 지역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 봉사를 수년째 이어오는 등 사회 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약 10여 개국에서 2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옥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학 내 한옥학과와 대학원 전공 개설해 K-MOOC와 연계한 교양과목과, 온라인 강좌인 K-MOOC와 연계해 ‘한옥개론’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 1기 신청하세요”

대상은 초4~고3… 내일까지 신청 가능

‘2025년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 1기가 오는 22일 본격 시작된다.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는 2024년 운영되던 ‘원어민 화상영어 토크클래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는 원어민 강사와의 화상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영어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영어 공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함이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는 총 4기로 구성, 1기수당 약 3,0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다. 1기수당 9주씩 수업이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며, 원어민 강

사를 활용한 1:3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주 2회·1차시당 30분씩이다.

1기 운영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17일까지 온라인사이트(<https://www.jhe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올해도 원어민 화상영어를 운영한다”면서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6월 3~18일까지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림미션홀서 ‘JJ직무박람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4일 하림미션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JJ직무박람회, 내 꿈(Dream)을 잡(JOB)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활약 중인 취업 선배(졸업 후 5년 이내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생생한 직무 현장 경험과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멘토로 참여한 졸업생은 △네스코리아(게임기획) △하림(제품연구개발) △NS홈쇼핑(서버플스택개발) △본아이에프(인사) △노루페인트(안전보건환경) △한국공항보안(항공보안직) 등으로 진로 설계와 직무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 채용설명관’에서는 오투기, 참프레, DH오토리드, 정석케미칼, 이피캠텍 등 17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한 학생들은 “직무정보와 취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취업 전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캠퍼스 안에서 다양한 기업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식품산업 채용설명회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식품산업 분야의 취업 정보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교육감 서거석) 15일 전주생명과학교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 식품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직업계고 11개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과 취업 담당 교사들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 △이성당 △풍년제과 △코코빌 등 5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회사 소개, 채용 절차, 인재상, 직무환경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학생들은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채용에 필요한 취업 역량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궁금했던 기업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진로 방향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채용 설명회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키우고 우수한 기업과의 조기 매칭을 통해 고졸 취업의 문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한 실무형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유공교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남다른 사명감·헌신으로 전북교육 발전 기여

전북교육청,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
서 교육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2층 강당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교육감은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 528명에게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홍조근정훈장 민완성

전북교육청교육연구원장 △대통령표창 송현진 수소에너지고등학교장, 김미숙 전주서문초등학교장, 박지용 전주서문초등학교 교감 △국무총리표창 최재원 덕안고등학교 교사, 이등 전북온라인학교 교사, 변선희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해진 전주온빛초등학교 교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표창 111명 △교육감표창 409명 등이다.

수상자들을 수업혁신,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 향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등 전북교육청의 핵심정책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보살피고 준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1차 사전교육

전북교육청 2층 강당서 17일 개최… 캠프 운영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2층 강당에서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동문제 해결 능력, 문화 간 협력 역량,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미국 뉴저지의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에서 13일간 UN 본부, 국제 NGO,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현장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전교육은 해외연수 출발 전 학생들의 세계시민 의식과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고, 진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 단계다. 사전교육은 총 3차례 운영된다. 2차 사전교육은 6월 14일, 3차 사전교육은 7월 12

일 예정에 있다.

1차 사전교육은 △캠프 운영 및 학생 안전·보건 교육 △모둠별 SDGs 프로젝트 주제 협의 △모의 UN 활동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캠프 참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올해 참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시 진행할 탐구활동과 협업 프로젝트를 사전연수부터 구체화해 캠프 준비에 자신감을 쌓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단순한 해외 탐방이 아니다”며 “진로에 대한 사전교육부터 사후성과 관리까지 촘촘히 설계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IDT 활용 수업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2~13일 이틀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AIDT 운영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0개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AIDT 도입과 수업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 공유 △수업 나눔 △지원 방안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3~4월 중 AIDT 운영학교를 방문해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해당 학교, 교재 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

AIDT 현장지원단 30여 명과 함께 수업 나눔을 하면서 수업 적용과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AIDT 활용 수업 확산 등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6월 중 수업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 AIDT 수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2025년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출범

전북교육청, 총 51명 선발… 12월까지 의견 제시 등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모니터단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소통을 강화해 학생·학부모·학교가 함께 만드는 급식정책을 수립하고, 가정-학교 연계한 식생활 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까지 각급 학교를 통해 △유치원 7명 △초등학교 24명 △중·고등학교 20명 등 51명의 정책모니터단을 선발했다.

선발된 정책모니터단은 12월까지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자녀 식습관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 △자

녀와 함께 하는 학교급식 자량 △급식 시설 개선 아이디어 제안 △급식정책 만족도 설문 △영양·식생활교육 우수 학교 방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책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학교급식 우수사례는 자료집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부족한 사항은 개선·보완해 향후 학교급식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이 열렸다.

전북대, 계약정원제 활용사업 설명회

참여 학생 지원 내용·기업의 역할 등 안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4일 인터내셔널센터에서 2025년도 계약정원제 활용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이 주관하는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에 전북대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첨단 전라북도 분야 기업 20곳과 전북대 대학원 진학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참여 기업의 역할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오는 9월 있을 석사과정 입학 및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은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반영한 계약정원제를 통해 석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특히 첨단무기, 우주항공, 반도체 부품, 차세대 통신, 드론, 기후테크 등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2027년 6월까지 2년간 △기업 맞춤형 전략기술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해외 단기연수, 현장실습 기회 등이 제공된다.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석사과정 20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 중 교육지원비 20억원, 산학 프로젝트 지원비 10억원 등이 투입된다.

한편 전북대는 오는 9월 석사 입학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대, 농생대, 자연대 등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 예정자다.

아울러, 전략기술 기업 중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약정기업 모집도 병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